2027 CANADA
SSAM WINTER CAMP
Regent Christian Academy

기간 2027년 1월 20일 ~ 2월 13일 (4주)

대상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1학년 (20명)

※대상 학년 이외의 학생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해당 캠프의 모집 인원은 학교의 국제학생 비율 및 학사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Why SSAM?

많은 학부모님들이
SSAM CAMP를 선택하는 이유!

EZ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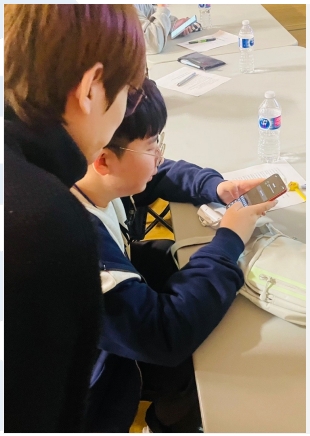
1 캐나다 명문 사립학교 주최
Regent Christian Academy

- 47년 전통의 명문 사립학교 *Since 1978*
- RCA 재학생과 함께하는 스쿨링 캠프
- BC주 현지 정규 교사가 직접 진행
  학생의 참여도와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팀 프로젝트
- 스쿨링 Certificate 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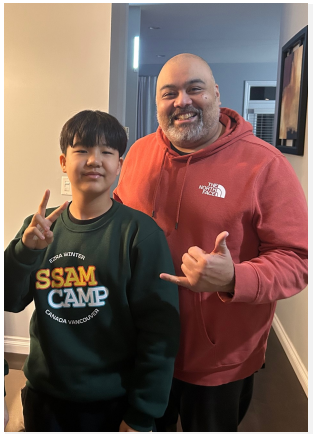
2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Cultural Program

- 캐나다 현지 학생들과의 문화 교류
- 학업과 액티비티의 조화로운 균형
- 캐나다 밴쿠버 명소 및 문화 투어
- 스키장, 컬링 등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
- 2박 3일 빅토리아 투어



3 SSAM만의 세심한 관리
SSAM's Careful Care

- 국제 학생 프로그램 20년 경력
- 1:1 톡방을 통한 학부모님과의 긴밀한 소통
- 카페에 매일 업로드되는 스쿨링 활동
- 등하교 라이드 제공



4 안전하고 쾌적한 홈스테이
Safe&Comfortable House

- 기숙형이 아닌 현지 가정형 홈스테이
-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홈스테이 제공
- 홈스테이 범죄 경력 회보서 필수 제출
- 검증된 홈스테이 다수 확보
- 2~3인 1실 사용

아이들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
CANADA VANCOUVER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캐나다 밴쿠버

-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 인종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 총기 규제 및 높은 치안 안전성
- UN 선정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 온화하고 쾌적한 날씨 (1월 평균기온 2~7°C)



캐나다의 우수한 교육 환경

-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교육 수준
- 검증된 양질의 교육 시스템
- 북미 정통 영어 사용
- 세계적인 명문 대학 진학 기회
  UT, McGill, UBC, McMaster, SFU 등

SSAM이 선택한 학교,
Regent Christian Academy (RCA)

- 1978년 설립된 전통있는 명문 사립학교
- BC주 랭킹 289개의 Secondary School 중 19위
- 4만평이 넘는 광활한 캠퍼스
- 99%의 대학 진학률
- 크리스찬 스쿨의 안전하고 엄격한 교풍
- 총 학생수 약 1,000명 중 한국 학생 비율 2% 미만



CAMP Schedule

EZRA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0	21	22	23
				캐나다 입국 & 오리엔테이션	빅토리아 투어		
	24	25	26	27	28	29	30
8:30~3:00	홈스테이와 함께	ESL Study					사이프레스 스키장
3:00~5:00		BYON	포트랭리 투어	BYON	UBC 투어	BYON	
	31	2/1	2	3	4	5	6
8:30~3:00	홈스테이와 함께	다운타운 투어 & 컬링체험	RCA 스쿨링	RCA 스쿨링	RCA 스쿨링	RCA 스쿨링	휘슬러투어
3:00~5:00			BYON	BYON	BYON	BYON 아이스하키 관람	
	7	8	9	10	11	12	13
8:30~3:00	홈스테이와 함께	RCA 스쿨링	RCA 스쿨링	RCA 스쿨링	RCA 스쿨링	그랜빌 아일랜드 & 캐필라노 브릿지	한국으로 출발
3:00~5:00		BYON	BYON	BYON	수료식		

*기상 이변, 폭설, 폭우, 태풍 등 학생 안전을 위해 이동이나 등교가 제한되는 경우, 학생들은 관리자의 감독 하에 홈스테이에서 가족들과 안전하게 집에 머물게 됩니다.
*상기 액티비티 일정은 날씨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Daily Schedule

8:20~8:35	Homeroom
8:35~9:20	Block 1
9:25~10:10	Block 2
10:10~10:30	Recess
10:35~11:20	Block 3
11:25~12:10	Block 4
12:10~12:50	Lunch
12:55~1:45	Block 5
1:50~2:40	Block 6
2:45~2:50	Homeroom
3:00~5:00	BYON or 액티비티

캐나다를 경험하는
2박 3일 빅토리아 투어 1주차

빅토리아는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주도로, **밴쿠버에서 페리를 타고 이동하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유럽풍 건축물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캐나다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 2박 3일 빅토리아 투어에서는 BC주의 상징인 주의사당, 이너 하버(Inner Harbour) 등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하며 캐나다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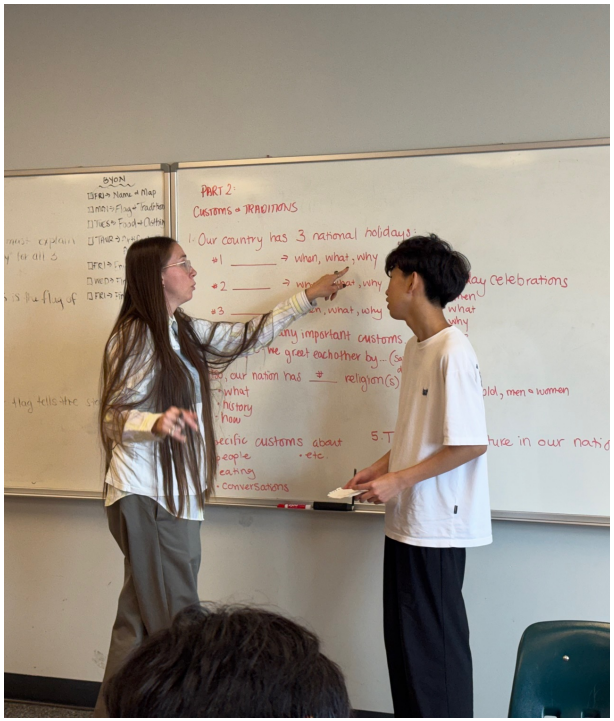




영어의 기본기를 다지는

ESL 프로그램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2주차

Reading, Writing, Speaking, Listening 등 영어의 기본 영역을 균형 있게 학습하며 캐나다 생활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실용 영어를 익힙니다. 다양한 활동과 영어 중심의 수업을 통해 영어로 듣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경험을 쌓으며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키웁니다. **특히 1주 뒤 시작될 현지 학교 수업에 앞서 영어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 자신감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현지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캐나다 Schooling 3-4주차

레벨테스트 후 학년별로 반을 배정받아 캐나다 학교의 정규 수업에 현지 학생들과 함께 참여합니다. 실제 캐나다 BC주의 교과 수업을 영어로 경험하며 캐나다의 교육 방식과 학교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현지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키웁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영어로 수업을 듣고 생활하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스스로 소통하고 성장하는 힘을 기릅니다.







영어로 창의력과 자신감을 키우는

BYON *Build Your Own Nation*

2-4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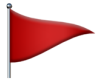
BYON(Build Your Own Nation)은 학생들이 직접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보는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입니다. 국가의 이름과 국기, 지도부터 문화, 음식, 전통, 제도 등을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설계하며 하나의 국가를 완성해갑니다.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창의력, 협업 능력, 문제 해결력을 자연스럽게 키우고, 마지막에는 자신들이 만든 국가를 영어로 발표하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경험합니다.





10-Day BYON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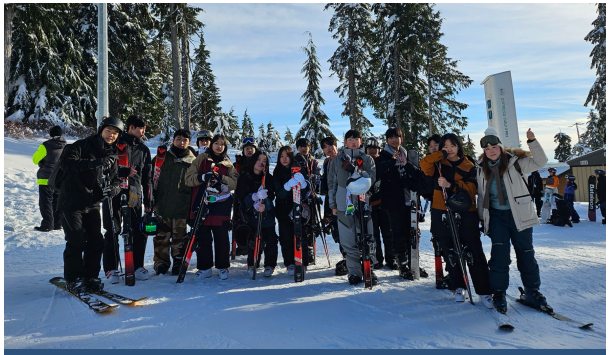
Build Your Own Nation, Step by Step

Day 01	Day 02	Day 03	Day 04	Day 05
				
Map & Provinces	Flag & Identity	Food & Cuisine	Clothing & Culture	Artifact & Culture

Day 06	Day 07	Day 08	Day 09	Day 10
				
Animals & Wildlife	Environment & Nature	Government & Society	Final & Rehearsal	Presentation

※ 프로그램 일정 및 세부 활동은 현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very Week, A New Adventure
다양한 밴쿠버 겨울 액티비티



사이프레스 스키장 Cypress



캐필라노 브리지 Capilano Bridge



아이스하키 관람 Ice Hockey



다운타운 Downtown Vancouver



휘슬러 Whistler



그랜빌 아일랜드 Granville Island

*상기 액티비티 일정은 날씨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가족과 함께하는
진짜 캐나다 생활



🔍 SSAM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홈스테이

홈스테이 선정시 범죄 경력 회보서 필수 제출 등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홈스테이만 배정

📝 20년 이상의 운영 노하우

2007년부터 국제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홈스테이 다수 확보

🏠 안전하고 따뜻한 생활환경

현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영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진정한 캐나다 라이프 경험

홈스테이 룸 예시 (2인 1실)





퀸 사이즈 이상의 침대를 2명의 학생이 함께 사용하거나, 1인 침대를 각자 사용합니다.
일부 홈스테이의 경우 2층 침대(Bunk Be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7 SSAM WINTER CAMP

이런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 영어를 자신감있게 말하고 싶은 학생
- 해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은 학생
- 겨울방학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학생
- 북미 교육을 경험하고 싶은 학생
- 새로운 친구들과 단체 생활을 경험하고 싶은 학생
-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심을 키우고 싶은 학생
-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싶은 학생



SSAM CAMP REVIEW

EZRA

정말이지 눈 깜짝 할 사이 한달이 훌쩍 지난 것 같아요. ■■이가 밴쿠버에 갈 수 있었던 게 큰 복인줄 알았는데, 밴쿠버가 아니라 선생님들을 만난게 최고의 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달 내내 가족 모두가 ■■이 보고싶은 마음은 가득했지만, 걱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모만큼이나 충만한 사랑으로 부족함없이 돌봐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미래도 늘 빛나길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정말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3:03 p.m.

❤️ 2

원장님~
금요일에 잘들어가셨나요?
■■이는 어젯밤에 잠꼬대를 영어로 해서 저희 부부 둘 다 크게 웃었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고
안온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이가 엄마 준다고 만들어 온 팔찌인데 귀여워서 첨부해요

😆 4



■■이 아빠입니다 ■■이가 캐나다에서 4주간의 캠프기간동안 아이를 세심히 돌봐주시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후 6:23

👍 1

비행기 타기전에 ■■이랑 통화를 했는데 캐나다 너무 좋다고 한국 오기 싫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아이들의 모습에 너무 행복해 하는 모습이 보여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4주가 이리도 짧았나 싶네요 ㅋ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오후 6:30

아이들 표정이 밝아서 저도 저절로 미소가 나오더라구요^^ ■■이 준비해서 1월에 보내야겠네요^^

오후 6:32

저도 그러고 싶네요 ㅎ

오후 6:32

😆 1

한달동안 진심으로 아이들을 챙겨주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에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수 있어서 소미니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영광이였습니다~
덕분에 ■■■■가 많은걸 배우고 보고 느끼고 맘껏하면서 너무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될지 모를만큼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계시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가득하세요~~^^

5:00 p.m.

❤️ 1

안녕하세요.
답이 좀 늦었습니다.
아이들을 캐나다로 보내며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던 순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달을 모두 보내고 한국에 돌아온 지도 벌써 2주가 훌쩍 지났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뜻깊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배려와 관심을 받았는지 느껴집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오전 12:39

❤️ 1 👍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캠프 잘 마치고 돌아오는군요!
너무나 안내 잘 해주시고 체계적으로 운영 잘해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안심하고 아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육회사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 10:42

❤️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좀 쉬셨는지요.■■이는 며칠 정신못차리다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공부는 안하지만 학원다니느라 바쁩니다. 여전히 캐나다 이야기하면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영어실력은 안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달 사이 좀 어른스러워지고 부드러워졌더라구요 선생님들 보살핌과 좋은 커리큘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이 동생도 이야기듣고 너무 가고싶어하니 인연이 또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한달동안 잘 챙겨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전 12:07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따뜻하신분들이라 아이들도 모두 착하고 순한것같아요♡주위 엄마들에게 열심히 홍보중이랍니다ㅎㅎ너무 좋다구ㅎㅎ

8:54 p.m.

❤️ 1

와우~~ 너무 감사드려요■■어머님 ^^♡♡♡

8:56 p.m.

첫째도 다른곳통해 보내봤지만 이번에■■이 너무 만족스러워요👍진심입니다♡

8:57 p.m.

❤️ 1

저희 샘들 이 메세지 보시면 한방에 피곤도 날라가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넘 예뻐서 피곤한지도 모르시겠데요 ^^
진심 감사해요❤️❤️❤️

9:00 p.m.

정말 아이들 너무 사랑해주시는게 마구마구 느껴져요💛

9:03 p.m.

❤️ 3

■■■■

와..
정말 애프터까지 완벽한 캠프였네요.
이번캠프가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방학때마다 캠프경험시키려고요.
혹시 선생님께서 알고계신곳 있다면 추천도 부탁드려요.
선생님이시라면 ■■이 믿고맡길수 있을것같아요.

오후 9:42

네 어머님 이번에 저희가 겨울캠프도 스쿨링 형태로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캠프 준비해서 꼭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

SSAM CAMP REVIEW

EZRA

[redacted]
짝짝짝 큰박수 보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저의 경험상 어느캠프에서나 아이들 챙기기에 소홀한 샘들은 안계실 것입니다 그중에 아이들의 만족도를 짚어 본다면 이번 캠프가 단연 1위일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첫날부터 시작해서 사진을 쭉~보았지만 단체 사진에서 맨 앞줄에 있는 [redacted]를 발견 하기는 처음인것 같네요 : 샘과 함께 하고픈 마음이 있었을까 (?)[redacted]오랜만에 말쑥한 모습 보여주네 곧 만나자
이곳에서 4주 함께 했던 카페 가족들 모두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

2026.08.14. 07:04 답글쓰기

[redacted]
매일 매일 소중한 일상을 공유해주셔서 바로 옆에 있는 듯, 부족함 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세심하게, 마음 편하게 잘 돌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모들도 한달동안 아이들과 캠프 간접 경험하며 어제는 뭐했지 여기는 이렇구나 행복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아이들도 한층 더 성숙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캐나다는 처음인데 처음을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캐나다 유학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좋은 경험으로 한발 더 용기내서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경험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원장선생님도, 현지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2026.08.14. 08:40 답글쓰기

[redacted]
댓글을 남기자니 먹먹해지는 마음에 어떤 말로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금방 떠오르질 않네요. 아이들의 한달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듯 합니다.

모든 사진과 영상 그리고 생생한 글로 남겨주신 아이들의 일상이 그냥 눈뜨면 생기고 살아지는 순간이 아니라 어느것 한부분 빠짐없이 모든 선생님들의 노고와 부족함 없이 퍼주고싶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한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여 현지에서 아이들에게 불편한점이 있었더라도 아주 빠르게 해결해주시고, 애써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을 데리고 시간에 맞춰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싶은 마음에 조급한 순간도, 답답한 순간도 분명 존재했을텐데 그 모든 순간들을 사랑으로 감싸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글 알림이 뜨는 순간,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아이들의 일상을 엿보는 매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게 댓글을 남기는것뿐이었는데 큰 힘이 되었다 해주시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네요!

밴쿠버에서의 모든 찰나가 아이들에게 오랜 추억으로 자리잡아 문득문득 떠올리며 웃을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온기 가득한 사랑만 잔뜩 주셨어요! 정말 감사가 가득한 캠프였습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길 멀리서나마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여 힘든 순간이 생긴다면 선생님들을 응원하는 [redacted]네가 그리고 여기 모든 가족들이 있다는걸 꼬옥 기억해주세요!☺️ 덕분에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2026.08.14. 07:55 답글쓰기

[redacted]
벌써 4주가 이렇게 지나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네요🥹[redacted]이를 처음 보낼 때만 해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는데, 막상 지나고 나니 정말 순식간이었던 것 같아요.매일아침 사진과 글을 봐서 더 안심되고 그랬던것같아요😍처음에는 낯선 곳에서 한 달을 잘 지낼 수 있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아이가 하루하루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redacted]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온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무엇보다 웃긴 건... 캠프 다녀온 뒤로 [redacted]이가 매일 하는 말이 "엄마 우리 캐나다로 이민가자""나 유학 보내주면 안 돼?" 🤭이거예요ㅎㅎ처음에는 그냥 캠프가 재미있었나 보다 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캐나다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그만큼 [redacted]이에게 이번 시간이 특별하고 좋았던 시간이었나봐요🥹❤️
아마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해보고, 혼자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redacted]이 스스로도 느낀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저희는 [redacted]이가 둘째라 가서 잘할까 걱정을했는데 컨디션이 좋지않았지만 홈스테이가족분들과 선생님들과 원장님의 보살핌으로 아픈거이겨내고 마무리까지 잘하고 와서 너무 대견하고 감사해요💛아직은 엄마가 보기엔 어린 아이 같은데, 어느새 자기만의 세상을 경험하고 와서 "나 유학 가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 이번 캠프가 [redacted]이에게 정말 큰 경험이 되었구나 싶어요😊그리고 한 달 동안 아이들과 함께해주시고 잘 챙겨주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부모가 함께하지 못하는 곳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늘 신경 써주셨을 생각을 하니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무엇보다 처음 만나 4주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소중한 친구가 된 모습이 참 예쁘네요🥰홈스테이 했던 홈맘아이와 조카와도 친해져서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redacted]이랍니다ㅎㅎ4주 동안 함께 웃고, 배우고, 여행하고, 좋은 추억 만들어준 모든 친구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그리고 우리[redacted]이에게 이렇게 좋은 경험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신 선생님들과 원장님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한국에 돌아왔는데도 [redacted]이 마음은 아직 캐나다에 있는 것 같아요ㅎㅎ4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우리 아이들 모두 이번 여름의 추억 오래오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그리고 언젠가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할께요🙏

2026.08.19. 14:32 답글쓰기

[redacted]
아침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게시판 글을 확인 하러 오는 루틴이 없어진 것 같아 아쉬웠는데 또 마지막 소식을 전해 주시니 반갑네요^^

선생님의 글을 읽으니 올려주셨던 사진들도 떠오르고 그 분위기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 소리도 들리는 듯 생생하고 뭉클하네요 ㅜ
저도 사진으로 마나 아이들도 매일 보고 해서 정이 든 느낌인데 선생님들께서는 비할바가 아니겠죠ㅠ
아이들 한명 한명에 대한 애정어린 글들과 그동안 올려주신 글들을 통해서도 선생님들의 깊은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들 착한 아이들이겠지만 그런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더욱 더 선생님들을 따르고 즐거운 캠프로 순항한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선생님 오랜 비행시간 동안 피곤하실텐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캠프였기 때문에 [redacted]삶에 좋은 자양분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다시 선생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2026.08.15. 13:42 답글쓰기

Program Overview

캠프 일정	2027년 1월 20일 ~ 2월 13일 (4주)
인솔 안내	**인솔교사가 한국 출국부터 캐나다 입국까지 전 일정 인솔** ★
참가 대상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1학년
포함 사항	학비, 숙소, 식비, 교통비, 보험료, 액티비티 비용
불포함 사항	캐나다 eTA, 왕복항공권, 개인 용돈
캠프 참가비	**CAD 10,800**







※대상 학년 이외의 학생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